

전 시장 vs 현역의원 한판 승부

여수갑

민주 주철현 지역 조직 탄탄
무소속 이용주 정치경험 많아
민주당 바람이나 인물론이나
고교·검찰 선후배 대결 주목

여수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이용주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고등학교와 검찰 선후배로 절친했던 두 후보 간 정면대결인 만큼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크다.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지낸 민주당 주철현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장을 거머쥔 뒤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시장과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내면서 지역 조직기반도 탄탄하게 다져온 것이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 바람'과 세 확장을 통해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무소속 이용주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옷을 입고 출마해 '녹색돌풍'에 힘입어 43.91%의 높은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 예산 확보 등을 내세우며 '민주당 바람'에 맞서 일찌감치 조직을 다지며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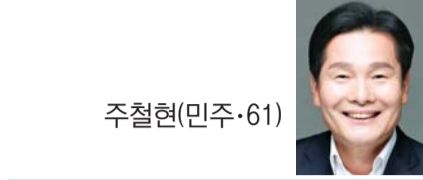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을 지낸 주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주 예비후보는 여수시장 재직시절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객 1000만명을 넘어 1300만명 시대를 기록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임시절 터져나온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주 예비후보를 두고 두고 괴롭히는 '주홍글씨'가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장기간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가짜뉴스'와 괴리를 무는 괴소문들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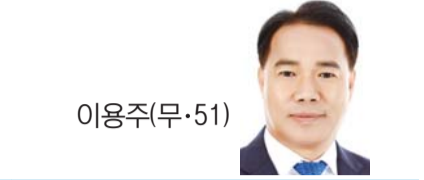
이에 주 예비후보는 "상포지구와 관련해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주 예비후보가 '상포지구 파고'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번 총선에서



주철현(민주·61)

학력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경력	(전)민선6기 여수시장 (전)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
주요 공약	·한국해양관광공사 신설 유치 ·여수항,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서울~여수 2시간대 철도시대



이용주(무·51)

학력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경력	(현)제20대 국회의원 (전)법무법인 태원 대표변호사
주요 공약	·울촌제2·3산단 조기 착공 ·여수 특산물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소 설치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유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라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완수를 뒷받침하고, 민주당을 지켜내기 위해 여수 전문가인 주철현의 당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해양관광공사 신설 유치와 ▲여수항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서울~여수 2시간대 철도시대를 3대 핵심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수가 해양관광시대를 열고 있고, '해변·스포츠·크루즈' 등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해양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국내 해상 환경 물동량의 80%를 차지하는 여수항은 중동과 사할린 생산 원유를 중국 원유저장시설의 65%가 몰려있는 산동항과 일본으로 환적해 보내는 국제 해상환적항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여수항을 국제 해상 물류 환적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 예비후보는 현재 '무늬만 고속철도'인 서울~여수간 고속철도를 2시간대로 단축해야 한다면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포함과 경전선(광주승정~순천) 선형개량 및 전철화 사업의 여수 엑스포역 확대 운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운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주 예비후보는 여수고 선배이자, 검찰 선배인 민주당 주 예비후보와의 한판 승부를 버리고 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여수시 예산 2조원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다졌다"면서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며 '인물론'을 앞세우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7차 청문회에서 '버럭 요정'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면서 대중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시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17번이나 이어진 호통과 질문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면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자신이 발의했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고, '주박 최다 보유' 국회의원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이 예비후보는 선거기간 중 '주박 최다 보유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이미지를 어떻게 씻어내느냐가 당락을 결정짓는 가능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예비후보는 "여수는 전남 제1의 도시인 만큼 여수에서도 이제 대중적인 정치인,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면서 "고향 여수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지 의사를 호소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개혁완수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했고, 재선이 된 이후에는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청년 및 실업자(은퇴자) 생계지원 대책 마련 ▲울촌 2, 3산단 조기 착공으로 공장 부지난 해소 ▲여수건강식품연구원 설립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윈스톱 통합복지센터 건립 ▲한국폴리텍 대학 여수 캠퍼스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섬 벨트 특화관광 레포츠 인프라 구축, 여수엑스포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엑스포 사후 활용을 위한 국제미술관 건립 등의 세계 문화 도시 건설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시켰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무주공산...검·경 출신 맞대결

여수을

민주 김희재 세대교체론 주장
정의당 김진수 양극화 잡아
무소속 권세도 지역기반 든든
4선 국회부의장 주승용 불출마

여수를 선거구는 지역 터줏대감이었던 4선의 주승용 국회의부의장이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이 없는 선거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희재 예비후보가, 정의당에서는 김진수 예비후보 그리고 무소속 권세도 예비후보가 본선 대결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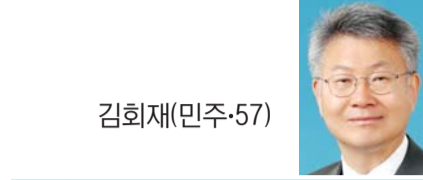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을 지낸 민주당 김희재 예비후보는 정치 초년생이지만, 경선에서 여수를 지역위원장 출신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내면서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는 평가다. 또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조직을 흡수하는 등 지역 민심도 차분하게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희재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2022년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역 내 세대교체와 참신한 정치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여수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의 세대교체를 바라고 있고 여수정치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 반목과 편가르기등 잘못된 정치행태가 반복돼 왔다"면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통합과 포용, 소통과 협력의 새 정치로 바꾸겠다. 또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수의 정치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여수의 낡은 정치문화를 통합과 포용의 새 정치로 바꿀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인재를 키워 여수의 미래에 대비하겠다"면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 김희재에게 시민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새로운 여수,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여수산단의 노후 설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섬진강유역 환경정화'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수, 순천, 광양시와 경남



김희재(민주·57)

학력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	(현)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변호사 (전)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주요 공약	·여수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지역거점 종합병원' 설립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개최



김진수(정의·60)

학력	전남대 산학협력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졸업
경력	(현)한국작가회의 이사 (전)여수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주요 공약	·거침없는 민생대개혁 통해 서민복지 실현 ·여수사건특별법 제정 지역의 아픈 역사 해결 ·부정부패 척결

의 남해, 하동군 등 남해안 권역을 묶는 '섬진강유역 환경정화'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청사도 멀리 떨어져 있어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이 위치한 남해안권의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수에 '지역거점 종합병원' 설립 추진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수 해양레저 휴양특구' 지정과 여자만 일대를 세계자연유산 등록 추진과 생태예술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밖에 ▲여수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랑과 응서'를 담은 치유공간으로서 '해양원 힐링 테마파크' 조성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울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조속 완공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개최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시인으로서 여수 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을 지낸 정의당 김진수 예비후보는 "불공정 불평등, 극단적 양극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해 정치판에 뛰어 들었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축출된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공정·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일계점에 도달해 서민들의 삶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전통문화가 단절될 위기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서민이 잘살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 가면으로 포장된 특권층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거침없는 민생대개혁을 통한 서민복지 실현 ▲여수사건특별법 제정 ▲부정부패 척결과 정의와 공정을 통한 기득권 구조의 악순환 단절 등을 내세웠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 '킷오프' 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권세도 예비후보도 지역 내 조직은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 출신인 권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권세도(무·61)

학력	조선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력	(현)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후보
주요 공약	·전라에우방지 변호사법 31조 개정 ·국회 전반기 여수사건특별법 발의·통과 추진 ·국가산단 지방세 확보로 1조원 시대

만, 권오봉 현 시장에게 석패했다. 당시 45.72%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52.1%를 득표한 무소속 권오봉 후보에게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권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 평당원으로 돌아가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제2의 정치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민주당 여수를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으로 시민들이 등을 돌린 점, 주승용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 김희재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 시작으로 재보궐 선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의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저와 뜻을 같이 해 특권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결집해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각오"라면서 "인구 30만 회복을 통한 전남 제1의 도시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라에우방지 변호사법 31조 개정 ▲국회의원 겸직금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신설 ▲호남하역(2021년 폐기) 이어 여수화력 LNG전환 추진 ▲대리점거래법, 제조물 책임법 등 5개 법안에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시행 등을 꼽았다.

또 여수사건과 관련 ▲21대 국회 전반기 여수사건특별법 발의 및 통과 추진 ▲대통령 방문 사과 추진 ▲위령탑 건립 등도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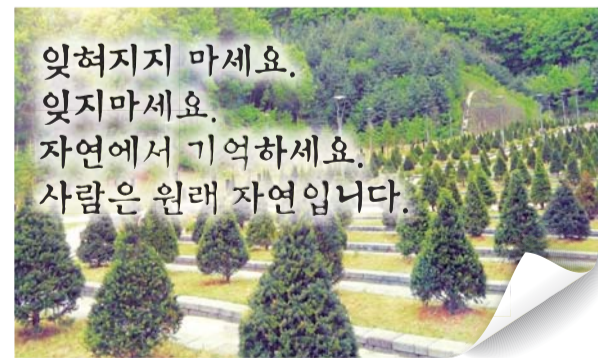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